

프로배구 男LIG 女GS칼텍스

全敗악몽 벗어나나?

'과거는 잊어주세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2006~2007 프로배구에서는 지난 시즌 천적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각 팀들의 전력 이 상당 평준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팀 색깔이 바뀌면서 새로운 대결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LIG가 '장신 군단' 현대캐피탈의 벽을 넘어서느냐다. LIG는 2005~2006 시즌에서 보합업체 라이벌 삼성화재를 두 차례 꺾는 저력을 발휘했지만 현대캐피탈에게는 '고양이 앞의 쥐'였다. 현대캐피탈에게 6차례나 세트스코어 0-3 완패를 당하는 등 7전 전패로 시즌을 마감했다. 이경수에만 치우친 단조로운 공격이 쉽게 읽혔고 이선규, 윤봉우 등 현대캐피탈의 장신 벽을 뚫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캐나다 국가대표 출신의 프레디 윈터스와 군에서 제대

현대캐피탈·KT&G 상대 작년 각각 한판도 못이겨

한 라이트 손석범의 가세로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오는 30일 구미에서 현대캐피탈과 첫 대결을 앞둔 신영철 LIG 감독은 "지난 시즌에는 우리가 높이고 수비 등 모든 면에서 뒤졌다"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지만 이번 시즌에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한국전력이 같은 아마추어 초청팀인 '불사조' 상무를 상대로 어떤 승부를 펼칠 지도 주목된다. 조직력이 탄탄한 한국전력은 지난 겨울 LIG를 상대로 2승, 대한항공으로부터 1승을 챙기며 '프로팀 저승사자'로서 입지를 다졌지만 상무에게는 7전 전패의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9월 한국배구연맹(KO-VL)컵 양산 대회와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상무를 잇따라 격파해 설욕전을 펼쳤다. 상무는 센터 조승목, 세터 원영철 등이 제대하고 주포 주상용이 오른쪽 발목 수술로 출장이 불투명하는 등 전력이 약화됐다. 최근 대결로 미뤄보면 두 팀의 관계가 역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혼전이 예상되는 여자부에서는 2005~2006 시즌 최하위팀 GS칼텍스와 3위 KT&G의 대결이 흥미롭다. GS칼텍스는 김민지, 이정옥, 나혜원의 막강 화력이 강점이지만 지난 시즌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끈끈한 KT&G를 상대로는 1승도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향상됐고 브라질 출신 용병 안드레이아 스포르진(187cm)의 가세로 센터진이 강해져 돌풍을 예고한 만큼 흥미로운 승부가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가볍게 레이업 슛 피닉스 선스의 보리스 디아우가 27일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센터에서 열린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의 미 프로농구(NBA) 정규시즌 경기에서 레이업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스

멕시코 오초아 '올해 여자선수'

AP통신 선정



골프 여왕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AP통신 선정 '올해의 여자선수'에 뽑혔다. AP통신은 28일 세계 각국 언론매체 스포츠기자들의 투표 결과 오초아가 220표를 받아 테니스 메이저대회에서 2승을 올린 아멜리에 모레스모(프랑스)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테니스 세계랭킹 2위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와 미국여자프로농구 시즌 최우수선수 리사 레슬리(미국), 그리고 프랑스로프테니스 챔피언 저스틴 에빙(벨기에) 등도 경합을 벌였지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삼관왕과 다승왕, 최저타수상을 석권한 오초아를 당해내지 못했다. 전날 '올해의 남자선수'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선정된 데 이어 오초아가 '올해의 여자 선수'에 뽑혀 이 상은 모두 골프선수에게 돌아갔다. 같은 종목 선수가 나란히 AP통신 '올해의 선수'에 선정된 것은 1993년 남녀 프로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과 셰릴 스무스 이후 13년 만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G골프 금 김경태·강성훈 KPGA 대기 시드권 받아

도하아시아게임 골프 금메달리스트인 김경태(20·연세대)와 강성훈(19·연세대)이 내년 투어 10개 안팎의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27일 김경태와 강성훈에게 대기 시드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KPGA는 이사회를 열어 김경태와 강성훈이 아시아게임 일정과 겹쳐 필리파인즈에 참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태와 강성훈은 투어 풀시드자 143명과 대기 시드자 20명에 이은 순위가 꽤 상황에 따라 최대 70% 정도의 대회에 출전할 수 있고, 상금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KPGA는 전망했다. 현행 규정은 시드를 부여받지 못하고 투어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초청을 받아야 하며, 출전 대회 수는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들 둘에게 예외를 적용해 대회 출전 기회를 늘려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형택 "힘찬 새해 열겠다"

카타르 오픈 참가자 29일 출국 한국선수중 첫 국제대회 출전

이형택(세계랭킹 49위·삼성증권)이 내년 1월1일 시작될 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 카타르오픈 참가자 29일 도하로 출국하면서 한국 선수중 가장 먼저 2007년을 연다. 지난 25일 수원월덕경기장에서 열린 '홍명보 장학재단과 함께하는 2006 푸마 자선축구'에서 유도 이원희(KRA)와 함께 숨겨둔 축구 실력을 맘껏 뽐냈던 이형택은 총상금 100만 달러가 걸린 카타르오픈에서 이 대회 역대 자신의 최고 성적인 단식 8강 이상 성적을 거두 정해년을 힘차게 열겠다는 각오다.

카타르오픈은 2006 도하아시아게임이 열렸던 칼리파 코트에서 벌어져 보름만에 다시 방문하는 이형택에게 유리하다. 이형택은 아시아게임 단식에서 다니이 우돔초케(104위,태국)에게 무릎을 꿇고 은메달에 그쳤지만 단체전에서는 대만과 일본을 차례로 격파하고 우승했다. 아시아게임 뒤 짧은 휴식을 취했던 이형택은 "카타르 오픈을 시작으로 다음 주 호주 시드니 인터내셔널에 참가한 뒤 2007년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에 출전한다"고 말했다.

연봉협상 중 구단대표 휴대폰 울리자 선수 '분노의 눈물'

일본프로야구의 한 선수가 연봉 협상 중 울린 구단 관계자의 휴대폰 벨소리에 눈물까지 흘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일본의 주요 언론은 전날 세이부 라이온스의 주장 아카타 쇼고(26)가 연봉 협상을 벌이던 중 구로이와 아카타 구단 대표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자 이에 격분, 눈물을 뿌리며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왔다는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아카타는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日프로야구 세이부 아카타 "구단측 무성의 너무 화났다"

벨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계속 대화를 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린 이유를 설명한 뒤 협상 대상으로 나선 구로이와 대표의 무성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구로이와 대표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아카타에게 사과

뜻을 전했다. 아카타는 세이부의 주장으로 올 정규 시즌에서 타율 0.293을 때리는 등 3년 연속 규정 타석을 채웠고, 구단은 올해보다 2천100만엔이 오른 연봉 6천만엔을 제시한 상태. 이날 구단과 세 번째로 협상을 가졌던 아카타는 그러나 이를 연속 협상 중 구단 관계자의 휴대폰이 울려대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노총각 장가 보내고 사라진 여성대리기사 이야기!
060-700-3658
[Image of a group of people]

30만원대 히터가 무릎 꿇었다! 독일형 베커 벽난로형 히터!
가격, 난방비, 소음, 냄새, 그걸음까지 30만원대 히터를 능가하는 벽난로형 히터가 99,000원
[Image of a heater]